

한국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실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ng the Practicaln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Courses in Korea

노 영 희(Younghe Noh)**

안 인 자(In-Ja Ahn)***

최 상 기(Sang-Ki Choi)****

< 목 차 >

I. 서론	V. 결과
II. 선행 연구	VI. 논의
III. 연구 질문	VII. 결론
IV. 연구 설계 및 방법론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교과목들의 현장필용성을 평가하고 교과과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사서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교과목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필수 또는 핵심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필수과목으로 사서실습, 문헌정보학개론, 정보조직학(분류목록), 정보조사제공론, 도서관경영론, 정보검색론 등 6개 과목, 핵심과목으로 정보자료분류목록실습, 주제별정보원(참고정보원), 장서개발론, 디지털도서관론, 서지학개론, 기록관리학개론 등 6개 과목, 나머지 과목은 학교의 상황 및 교수진의 구성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교육방법으로 사서실습 및 현장답사를 통한 교육, 발표 및 토론위주 교육을 제안하며,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교육주제의 최신성, 교육내용의 전문성, 교육자의 전문성 및 자질, 교육교재의 전문성, 담당과목과 담당교수의 전공상관도 제고 등이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교과목, 실용성평가, 핵심과목, 필수과목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to assess courses which are currently offered in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o explo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field librarians' needs and opinions about the courses, we suggested separating the required, core, and elective courses. We proposed six courses including 'Internship',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Library Management', and 'Information Retrieval' as required courses, and 5 courses including 'Practice i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Information Resource and Service', 'Collection Development', 'Digital Library System', 'Introduction to Bibliography' and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as core courses. Finally, the remaining courses were recommended as selective courses which each department could select depending on their circumstances and faculty. The important components for substantial LIS courses are as follows: timeliness of training topics, expertise of educational contents, professionalism and qualifications of faculty, specialized educational materials, and increasing the major correlation between courses and professors.

Keyword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Course, Practicalness Evaluation of LIS Courses, Required Courses, Core Courses

* 이 논문은 2011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전문사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문헌정보학 전공과목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동원대학교 아동문헌정보과 부교수(ijahn@tw.ac.kr)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sk@jbn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1년 11월 1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5일 • 최종심사일: 2011년 12월 28일

I. 서론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의 역사는 문헌정보학의 역사와 같이 한다. 국내의 경우 1950년대에 도서관학과가 설립된 이래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교과과정의 내용과 교과목은 변화되어 왔다.¹⁾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들이 학과명을 변경하고 또 그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교과과정은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모색하면서도 대학의 교과과정 편성은 그 대학 특유의 배경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개설된다. 특히 문헌정보학은 지식정보사회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교과목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발되어 왔으며 그 갱신주기는 2~3년으로 단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정보유통기술의 첨단화와 국제화 등 급변하는 도서관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전공교육의 혁신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양성교육과정에 관심을 두고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엄영애²⁾는 문헌정보학 학부교과과정의 변화연구를 통해 교과목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상당한 변화와 더불어 자료조직을 포함하는 변화가 없는 과목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영희와 안인자³⁾는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변화분석 연구를 통해 학부제 도입을 전후로 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그리고 노동조⁴⁾는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서(사서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각종 시험에서 채택되는 교과목에 대한 교육 영역과 교육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고시에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전 도서관 관중의 현장사서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거나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다.

전공교육은 이수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실무지식으로 활용 된다는 점에서 현장사서들의 실용성 평가 및 실무적 수요분석 등에 기초한 미래 응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전공교수들의 인적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내 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성 배양을 위한 표준화된 기본모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서의 전문직성을 강화하는 실용적 전공과정의 개발은 시급하다고 본다.

- 1) 노영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발전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a), pp.479-503.
- 2) 엄영애,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pp.409-427.
- 3) 노영희, 안인자,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변화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pp.429-450.
- 4) 노동조,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09), pp.451-468.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교과목들의 현장필요성을 평가하고 현장에 필요한 교과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사서들에게 현재의 교과목 운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수행함으로써 교과과정의 개선방향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면서도 특징적인 것은 첫째, 전국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총 정리하여 약 90개의 교과목을 도출한 후 각 과목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 현장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수행된 바와 같이 전국 사서, 전 도서관 관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교과과정 실용성 평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II. 선행 연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관련된 연구경향을 분석해 보면, 지식정보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학부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학부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 약 5년 동안은 주제전문사서를 비롯한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과 방향성을 논하는 연구가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⁵⁾

교과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없이 많으며,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 및 방향을 구분해 보면 특정 영역(기록관리학,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과목, 정보활용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⁶⁾⁷⁾ 1996년 이후 학부제에 적합한 교과과정 개발 연구,⁸⁾⁹⁾ 주제전문사서체제에 대한 논의 이후 기능별, 대상별 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선안과 구체적인 교과목을 제시하는 연구,¹⁰⁾¹¹⁾ 사서교사 양성과정에 관련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의 운용 체계 연구,¹²⁾¹³⁾

-
- 5) 노영희, 전개논문, pp.479-503.
 6) 정연경, "미국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4호(2002), pp.101-122.
 7) 박소연,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내 연구방법론 교육의 특성과 현황(한국정보관리학회 제8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pp.249-252.
 8) 김성수,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1998a), pp.45-80.
 9) 한복희, "변화하는 도서관환경에 대비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1999), pp.179-198.
 10) 남영준, 허운순, "주제전문사서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pp.39-64.
 11) 안인자, 황금숙, 노영희, "직무분석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사서의 핵심업무 및 전문사서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5권, 제1호(2008), pp.129-148.
 12) 함명식, "사서교사의 도서관 활용 수업을 위한 과제 중심의 교수설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5권, 제4호(2008), pp.347-36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4호)

한국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의 발전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연구,¹⁴⁾¹⁵⁾ 그리고 사서직원 자격요건 및 사서제격제도 개선을 위한 교과과정 연구¹⁶⁾¹⁷⁾ 등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교과과정은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모색하면서도 대학의 교과과정 편성은 그 대학 특유의 배경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개설된다.

둘째, 문헌정보학은 지식정보사회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교과과정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발되어 왔으며 그 갱신주기는 2~3년으로 단축되고 있다.

셋째,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정보유통기술의 첨단화와 국제화 등 급변하는 도서관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편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넷째, 전공교육은 이수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실무지식으로 활용 된다는 점에서 현장사서들의 실용성 평가 및 실무적 수요분석 등에 기초한 미래 응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국내 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성 배양을 위한 표준화된 기본모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Ⅲ. 연구 질문

현재 한국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은 2011년 현재 1,000여 과목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과목을 제외하면, 약 90개의 과목이 도출된다. 그 중에는 필수 및 핵심과목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약 10여 과목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선택과목 영역에 속한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핵심 또는 필수과목의 수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교과목들의 현장필요성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문헌정보학과에서 핵심 또는 필수과목으로 개설해야 할 과목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장사서들을 대상으로 교과목에 대한 현장필요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제기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3) 김종성, "학교도서관 영역 교과목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pp.371-392.

14) 노영희, 전제논문, pp.479-503.

15) 오경목, 장윤금, "A Study on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d Research Development in Korea," 정보관리학회지, 제23권, 제2호(2006), pp.185-206.

16) 박동철 등,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17) 박동철, 심경, 윤정옥,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09), pp.193-213.

18) 노영희, 안인자, 최원태,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9), pp.1-20.

- RQ 1 : 현장 사서들은 현 문헌정보학과와 교과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RQ 2 : 현장 사서들이 현장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은 어떤 과목들인가?
 RQ 3 : 현장 사서들은 현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교과목들 중 어떤 과목을 필수 또는 핵심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인가?
 RQ 4 : 현장 사서들은 학생시절에 이수한 교과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RQ 5 : 위에서 언급된 조사내용들에 대해 사서들의 경력별, 담당업무별로 차이를 보일 것인가?

본 연구진은 위의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V. 연구 설계 및 방법론

1. 표집 방법 및 데이터 수집절차

본 절에서는 현장사서들이 생각하는 전공과목 실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을 수행하였다. 사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대상은 국내 도서관 모든 관종이며, 『2010 도서관연감』에 등재된 도서관 중에 관종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도서관연감에 등재된 대학도서관의 수 및 직원 수는 651(분관 225개 포함)개 도서관 2,121명의 사서, 학교도서관의 수 및 직원 수는 10,937개 도서관 682명의 사서, 공공도서관의 수 및 직원 수는 703개 도서관 3,052명의 사서, 전문도서관의 수 및 직원 수는 584개 도서관 618명의 사서, 그리고 국가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행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포함), 국회도서관(입법), 법원도서관(사법)을 포함시켰으며, 기타 도서관협회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속 사서도 설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의 직원 수는 총 703명이다.

표본집단은 각 집단의 15~20%로 하였으며, 설문지 배포부수는 1,200건, 회수율은 42.33%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배포부수 및 회수율

조사영역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국가도서관	기타	총
배포수	500	300	140	120	140	0	1,200
회수건수	121	198	63	72	50	4	508
회수율	24.20	66.00	45.00	60.00	35.71		42.33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반송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1차 발송

은 2011년 6월 21일에 이루어졌으며, 7월 20일부터는 미착분에 대한 2차 발송이 이루어졌다. 2차 발송에는 이메일이 우편과 함께 사용되었다. 1차 발송분의 경우, 동봉한 반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회수되었고, 2차 발송분의 경우에는 우편과 함께 이메일 첨부 파일로도 회수되었다. 회수 마감일인 2011년 8월 20일까지, 배포된 설문지 1,200부 중 모두 508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42.33%).

2. 설문 내용과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의 문항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논문의 설문문항 구성을 참조함으로써 설문개발을 하였다.

첫째, 본 설문은 주요 교과목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에 조사된 한국문헌정보학 교육과정¹⁹⁾으로부터 전국 문헌정보학과와 교육과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각 영역별로 교과목을 도출하였으며, 각 과목의 필요성 정도를 리커트척도(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교과목 영역은 일관되게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직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정보조사제공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학의 7개 영역이다.

둘째, 위에서 도출된 각 과목에 대해 핵심(기초) 과목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하게 함으로써 사서들이 생각하는 핵심교과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부의 교육과정은 설문응답자의 어떤 직무능력에 도움이 되었는지, 설문응답자가 수강하였던 정규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위의 설문개발 목적과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모두 3개 조사영역, 12개의 조사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교과목 개정의 필요성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과목의 필요성 정도	문헌정보학일반영역(도서 및 도서관사, 문헌정보학개론 등)
	정보조직학 영역(정보자료분류론, 정보자료조직론, 메타데이터 등)
	정보조사제공학 영역(정보조사제공론, 주제별정보자원론, 정보이용자연구 등)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영역(도서관경영론, 관중별도서관운영론 등)
	정보학 영역(정보학의 이해, 정보검색론, 색인초록론 등)
	서지학 영역(서지학개론, 한국서지학, 중국서지학 등)
	기록관리학 영역(기록관리학, 기록보존론 등)

19) 노영희, 안인자, 최원태, 전계서, pp.429-450.

조사영역	조사내용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학부의 교육과정이 어떤 직무능력에 도움이 되었는지 및 그 도움정도
	학부에서 수강했던 정규교육과정이 도움이 되었던 항목 및 그 만족도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중요한 요인 및 그 중요도
개인적 배경	성별, 연령, 최종 학력, 도서관 근무 경력, 소속 기관, 소속 기관의 서비스 주제분야, 설문응답자가 가장 오랫동안 담당했던 업무(우선순위 2개만 선택)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A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문의 문항 각각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그리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 결 과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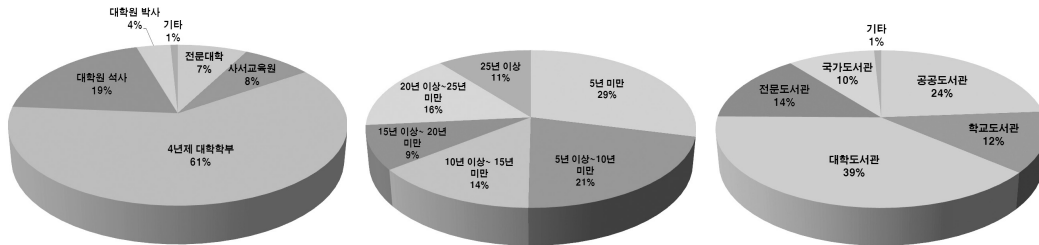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별, 문헌정보학교육정도, 도서관 근무경력, 도서관서비스분야, 담당업무, 소속기관별(공공, 대학, 학교 등) 특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필요성 정도 인식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응답자는 총 508명으로 남자는 25% (127명), 여자는 75%(381명)로서 현재 도서관 현장의 남녀성비가 관중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30:70 또는 40:60임을 볼 때, 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남녀비율은 적절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설문문의 경우 설문문항 수로 하면 수백 개에 이르고 매우 꼼꼼한 작업을 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자 사서의 참여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설문응답자의 연령분포를 보았을 때 20대 23.03%(117명), 30대 29.92%(152명), 40대 31.98%(162명), 50대 14.96%(76명), 60대 0.20%(1명)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문헌정보학 교육정도를 조사하였으며, 60% 이상이 4년제 대학학부 졸업이었고, 다음으로 19.13%가 대학원 석사, 3.75%가 대학원 박사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대학과 사서교육원은 모두 7.69%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설문응답자의 도서관 근무경력 분포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5년 미만 28.94%, 5년 이상~10년 미만 21.26%, 20년 이상~25년 미만 15.94%, 10년 이상~15년 미만 14.17%, 25년 이상 10.63, 15년 이상~20년 미만 9.06%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설문응답자의 소속기관은 대학도서관 38.98%, 공공도서관 23.82%, 전문도서관 14.17%, 학교도서관 12.4%, 국가도서관 9.84%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설문응답자가 소속된 도서관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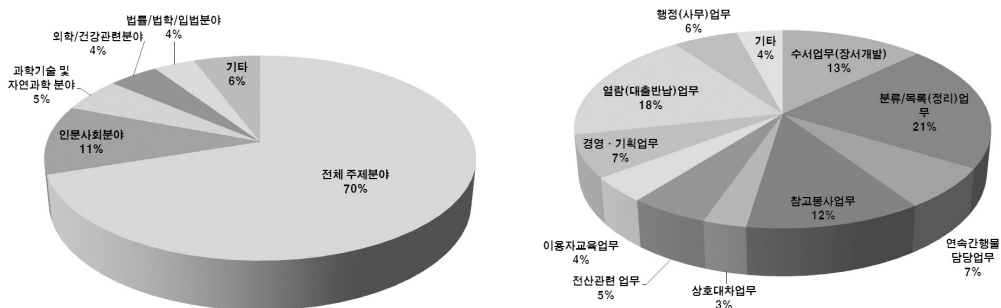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4호)

비스하는 주제분야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전체 주제분야가 69.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문사회분야 10.82%, 과학기술 및 자연과학분야 5.41%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설문응답자 소속도서관의 서비스 주제분야 분포는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설문응답자가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를 우선순위대로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수서업무 23.4%, 분류목록업무 37.6%, 열람대출업무 33.3%, 참고봉사업무 21.5%, 연속간행물 담당업무 12.4%, 경영·기획업무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담당업무 영역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1〉 문헌정보학 교육정도 〈그림 2〉 도서관 근무경력 〈그림 3〉 소속기관 유형



〈그림 4〉 소속도서관 서비스 주제분야 〈그림 5〉 담당업무 분포

2.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의 개정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설문응답자들에게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87.4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0.65%에 지나지 않았다(〈표 3〉 참조).

〈표 3〉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개정 필요성

개정 필요성 여부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매우 필요	120	25.92	120	25.92
필요	285	61.56	405	87.47
보통	55	11.88	460	99.35
매우 불필요	3	0.65	463	100

3. 문헌정보학 교과목 영역별 현장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가. 문헌정보학일반 영역 교과목 필요성

2009년 교과목들을 분석하여 총 14과목의 문헌정보학일반 교과목을 도출하였다. 14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이 있으나 연구진 간의 여러 번의 회의과정을 거쳐 유사과목의 단일화 및 개설빈도를 고려하여 설문대상 과목을 도출하였으며, 그 설문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매우 필요(5), 필요(4), 보통(3), 불필요(2), 매우 불필요(1)로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해 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성 수요가 가장 높은 과목은 사서실습(4.392)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헌정보학개론(4.113), 도서관과 저작권(4.014), 지식정보사회와 도서관(3.769)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교과목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다. 반면에 교육매체론이나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교과목들은 사서교사 양성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에 주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문헌정보학일반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과목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핵심지정여부	
					빈도	%
사서실습	4.392	0.725	5	1	143	28.1
문헌정보학개론	4.113	0.740	5	2	198	39
도서관과 저작권	4.014	0.802	5	1	84	16.5
지식정보사회와 도서관	3.769	0.744	5	2	44	8.7
도서 및 도서관사	3.602	0.798	5	1	81	15.9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3.581	0.786	5	2	54	10.6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윤리와 정보가치론	3.560	0.824	5	1	29	5.7
문헌정보학세미나, 문헌정보학특강	3.499	0.807	5	1	22	4.3
사서교사제도와 교육론	3.491	0.783	5	1	22	4.3
세계의 도서관(World Libraries)	3.466	0.742	5	1	19	3.7
도서관과 출판	3.460	0.801	5	1	11	2.2
문헌정보학과 교육방법론	3.427	0.789	5	1	34	6.7

과목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핵심지정여부	
					빈도	%
교육매체론	3.327	0.775	5	1	5	1
교재연구 및 지도법	3.233	0.814	5	1	10	2

또한 위에서 제시된 교과목이 핵심 또는 기초과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문헌정보학개론은 응답자의 39%(198명)가, 사서실습은 28.1%(143명)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핵심 또는 기초과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교과목에 대해 80% 이상의 응답자가 핵심과목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나. 정보조직학 영역 교과목 필요성

정보조직학의 경우 고문헌조직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목에 대해서 4.0 이상의 필요성 정도를 보여 주었다. 이 중 가장 필요한 교과목은 정보자료분류론(4.399), 정보자료조직론(목록, 4.384), 정보자료분류실습(4.36), 정보자료조직실습(4.344),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습(4.222)으로 나타났으며, 문헌정보학일반에 비해 그 값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정보조직학 영역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과목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핵심지정여부	
					빈도	%
정보자료분류론	4.399	0.715	5	2	223	43.9
정보자료조직론(목록)	4.384	0.763	5	1	228	44.9
정보자료분류실습	4.360	0.762	5	2	158	31.1
정보자료조직실습	4.344	0.746	6	2	135	26.6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습	4.222	0.799	5	2	117	23
비도서 및 멀티미디어자료조직론	4.002	0.751	5	2	93	18.3
메타데이터의 이해	3.953	0.820	5	2	80	15.7
고문헌조직론	3.388	0.848	5	1	36	7.1

또한 위에서 제시된 교과목이 핵심 또는 기초과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정보자료분류론은 43.9%가, 정보자료조직론(목록)은 44.9%가, 정보자료분류실습은 31.1%가, 정보자료조직실습은 26.6%가 핵심 또는 기초과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교과목에 대해서는 80% 정도의 응답자가 핵심과목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다. 정보조사제공학 영역 교과목 필요성

정보조사제공학의 경우 4.0 이상의 필요성 정도를 보여 준 과목은 정보조사제공론(4.271), 주제별정

보원(4.08), 인터넷자원활용론(4.111), 학술정보자원활용론(4.051) 과목이고, 정보리터러시(3.961), 비도서자료활용론(디지털정보자원활용론, 3.953), 정보이용자연구(3.93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사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은 주로 정보자원에 대한 이해(주제별정보원), 이용자에 대한 이해(정보이용자 연구), 적절한 정보원을 제공하기(정보리터러시) 위한 교과목들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정보자원이나 디지털정보자원의 활용에 대한 교과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정보조사제공학 영역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과목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핵심지정여부	
					빈도	%
정보조사제공론(참고정보서비스론)	4.271	0.722	5	2	166	32.7
인터넷자원활용론	4.111	0.738	6	2	72	14.2
주제별정보자원론	4.080	0.713	5	2	115	22.6
학술정보활용법	4.051	0.740	6	2	76	15
정보리터러시(정보활용교육론)	3.961	0.777	6	2	60	11.8
비도서자료활용론(디지털정보자원활용론)	3.953	0.754	6	2	47	9.3
정보이용자연구	3.931	0.771	6	2	63	12.4
독서교육론	3.899	0.866	6	1	77	15.2
독서치료	3.714	0.902	6	1	41	8.1
어린이청소년서비스론	3.690	0.791	6	2	28	5.5
인문사회정보원	3.687	0.718	5	2	27	5.3
과학기술정보원	3.679	0.739	5	1	27	5.3
아동 및 청소년자료	3.661	0.760	5	2	24	4.7
의학정보원	3.484	0.742	5	1	13	2.6
학술커뮤니케이션론	3.382	0.768	6	1	15	3
동양서지	3.294	0.744	6	1	9	1.8
문헌비평론	3.269	0.811	6	1	8	1.6

또한 위에서 제시된 교과목이 핵심 또는 기초과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정보조사제공론은 32.7%의 응답자가 핵심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다음 순위로 주제별정보원이 22.6%이다. 응답자들은 위 교과목에 대해 필요성 정도는 매우 높게 느끼고 있지만 핵심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²⁰⁾

20) 핵심 지정 여부에 대한 응답이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라.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영역 교과목 필요성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교과목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도서관경영론과 장서개발론은 각각 4.035, 4.02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서관마케팅 3.980, 관중별도서관운영론 3.912였으며, 도서관운동론은 2.9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영역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과목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핵심지정여부	
					빈도	%
도서관경영론	4.035	0.809	5	1	169	33.3
장서개발론	4.020	0.794	5	2	137	27
도서관마케팅	3.980	0.812	5	1	73	14.4
관중별도서관운영(공공.대학.학교도서관 등 포함)	3.912	0.748	5	1	97	19.1
비도서 및 멀티미디어자료관리론(콘텐츠관리론)	3.854	0.723	5	2	49	9.6
연속간행물 관리론	3.823	0.727	5	2	64	12.6
도서관문화프로그램론	3.794	0.848	5	1	62	12.2
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 평가론(정보통계분석론)	3.694	0.796	5	1	52	10.2
도서관정보협력론	3.460	0.728	5	1	20	3.9
정보사업론(정보시장론)	3.298	0.752	5	1	9	1.8
과학기술 DB평가	3.280	0.741	5	1	10	2
도서관건축론	3.241	0.781	5	1	19	3.7
기업정보관리론	3.115	0.712	5	1	2	0.4
도서관운동론특강	2.992	0.764	5	1	8	1.6

또한 위에서 제시된 교과목이 핵심 또는 기초과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핵심과목 지정여부에서 도서관경영론(33.3%)과 장서개발론(27%)을 핵심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의 응답자가 핵심과목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영역에서도 역시 필요성과 핵심과목의 지정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정보학 영역 교과목 필요성

정보학 교과목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정보검색론(4.091), 디지털도서관론(4.07), 도서관시스템자동화론(3.992), 정보학의 이해(3.9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프로그래밍언어론과 계량정보학은 각각 3.14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계량정보학은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과목이라기보다 학문을 위해 대학원과정에서 주로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정보학 영역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과목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핵심지정여부	
					빈도	%
정보검색론	4.091	0.755	5	2	124	24.4
디지털도서관론	4.070	0.725	5	2	95	18.7
도서관자동화시스템론	3.992	0.744	5	1	88	17.3
정보학의 이해	3.906	0.778	5	2	132	26
도서관정보시스템운영론	3.849	0.753	5	1	50	9.8
정보처리론	3.848	0.776	5	1	53	10.4
도서관정보네트워크(정보통신네트워크)	3.764	0.803	5	1	38	7.5
디지털콘텐츠론	3.760	0.733	5	2	34	6.7
색인초록법	3.740	0.800	5	1	64	12.6
데이터베이스운영론(웹DB운영론)	3.740	0.820	5	1	47	9.3
이용자인터페이스론	3.691	0.808	5	1	28	5.5
전자학술지구축및운영	3.683	0.817	5	2	36	7.1
인터넷서비스구축론(웹DB구축)	3.675	0.828	5	1	33	6.5
멀티미디어론	3.657	0.763	5	1	23	4.5
도서관과 인터넷기술	3.603	0.855	5	1	32	6.5
최신정보기술동향	3.576	0.821	5	1	21	4.1
정보시스템분석및설계	3.554	0.802	5	1	25	4.9
지식관리시스템	3.548	0.728	5	1	16	3.1
정보표준화론	3.465	0.800	5	1	17	3.3
시맨틱웹시스템구축론	3.283	0.810	5	1	8	1.6
지식구조론	3.264	0.763	5	1	6	1.2
프로그래밍언어론	3.178	0.877	5	1	10	2
계량정보학	3.143	0.817	5	1	12	2.4
정보의 전자상거래	3.117	0.812	5	1	5	1

또한 위에서 제시된 교과목이 핵심 또는 기초과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핵심과목 지정여부에서 정보학의 이해가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보검색론 24.4%, 디지털도서관론 18.7%, 도서관시스템자동화론 17.3%로 나타났다.

바. 서지학 영역 교과목 필요성

서지학 교과목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평균값이 4.0을 넘는 과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3.5 이하의 필요성 정도를 보여주었고 서지학개론 과목만이 3.5 이상의 값인 3.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값을 5로 선택한 사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표준편차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서지학 영역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과목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핵심지정여부	
					빈도	%
서지학개론	3.731	0.880	5	1	154	30.3
한국서지학	3.388	0.809	5	1	44	8.7
고전자료의 이해	3.331	0.814	5	1	35	6.9
고서정리법	3.215	0.893	5	1	27	5.3
동양서지학	3.088	0.762	5	1	13	2.6
서양서지학	3.067	0.775	5	1	10	2
중국서지학	3.051	0.754	5	1	4	0.8
고전자료강독	3.031	0.866	5	1	10	2
고서감정법	3.008	0.834	5	1	6	1.2

또한 위에서 제시된 교과목이 핵심 또는 기초과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핵심과목 지정여부에서 서지학개론만이 30.3%로 나타났고, 다른 모든 과목은 10% 이하의 매우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에 서지학과목의 감소추세 등에서 서지학과목이 문헌정보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장필요성은 더더욱 낮아 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사. 기록관리학 영역 교과목 필요성

기록관리학 교과목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서지학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서지학과목보다는 평균값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그 중에서 기록관리학의 가장 기초과목에 해당하는 기록관리학 과목은 3.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 기록관리학 영역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과목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핵심지정여부	
					빈도	%
기록관리학	3.794	0.82	5	1	123	24.2
기록관리시스템	3.613	0.797	5	1	33	6.5
기록정보조직론(관리실습)	3.596	0.846	5	1	40	7.9
문서관리론	3.589	0.804	5	1	36	7.1
기록보존론	3.561	0.812	5	1	37	7.3
정부간행물(정부자료론, 정부기록물관리)	3.515	0.781	5	1	20	3.9
기록정보수집 및 평가	3.505	0.78	5	1	16	3.1

또한 위에서 제시된 교과목이 핵심 또는 기초과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핵심과목 지정여부에서 기록관리학 교과목만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교

과목은 10% 이하의 핵심과목 지정 필요성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4. 교육과정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조사

가. 문헌정보학과에 효과적인 교육방법

설문응답자들에게 문헌정보학과의 학문 특성상 이 학문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으며, 사서실습과 현장답사의 교육방식(67.1%, 49.8%)을 선호했고, 다음으로 발표 및 토론위주 교육(53.3%)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교육방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3.5%). 분류 목록 및 도서관시스템 등은 책을 통해서만 관련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 사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시스템을 다루고 분류목록 업무 등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표 11〉 참조).

〈표 11〉 문헌정보학과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복수응답)

합계	빈도	508
	%	100
교수자에 의한 주도적 강의	빈도	155
	%	30.5
발표 및 토론 위주	빈도	271
	%	53.3
현장답사(도서관 현장 방문 등)	빈도	253
	%	49.8
사서실습	빈도	341
	%	67.1
온라인 교육 방법	빈도	18
	%	3.5

나.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의 직무능력에 대한 도움정도

설문응답자들이 수강했던 교과과정은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직무능력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리커트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만족도를 매우도움(5), 도움(4), 보통(3), 도움안됨(2), 매우도움안됨(1)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해 본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능력에는 도움이 되었다가 3.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원활용능력 3.678, 기술능력 3.659, 조직이해능력 3.508로 나타났다.

〈표 12〉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직무능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

평가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정보능력	3.829	0.756	5	1
자원활용능력	3.678	0.785	5	1

평가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기술능력	3.659	0.793	5	1
문제해결능력	3.522	0.834	5	1
조직이해능력	3.508	0.835	5	1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3.457	0.844	5	1
의사소통능력	3.455	0.91	5	1
대인관계능력	3.333	0.872	5	1
수리능력	2.996	0.757	5	1

다. 문헌정보학과 정규교육과정의 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만족도

설문응답자들이 수강했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포함한 여러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리커트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만족도를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불만족(1)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해 본 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서로서의 자질 및 전문성 강화 3.596, 타전공자에 비해 업무 배경지식 우수성 인식 3.555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났다.

<표 13>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정의 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3.950	0.705	5	1
사서로서의 자질 및 전문성 강화	3.596	0.849	5	1
타전공자에 비해 업무 배경지식 우수성 인식	3.555	0.816	5	1
교육내용의 전문성	3.510	0.793	5	1
발전적 업무 수행	3.341	0.715	5	1
교육강사의 전문성 및 자질	3.304	0.763	5	1
교수방법의 적절성	3.229	0.767	5	1
교육 기간 및 시간 배분	3.198	0.671	5	1
교육환경(장소, 시설, 수강인원, 실습환경 등)	3.153	0.744	5	1
교육주제의 최신성	3.151	0.804	5	1
교육교재의 내용	3.109	0.724	5	1
취업경쟁력 강화	3.076	0.869	5	1
실무와의 연계성	3.036	0.918	5	1

라.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의 내실화 방안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주제의 최신성(4.552), 교육내용의 전문성(4.528)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자의 전문성 및 자질 4.47%, 교육교재의 전문성 4.19%, 담당과목과 담당교수의 전공상관도 4.15%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수준의 다양화 및 레벨

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 값이 나왔다.

〈표 14〉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내실화 방안

내실화 방안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교육주제의 최신성	4.552	0.631	5	1
교육내용의 전문성	4.528	0.620	5	1
교육강사의 전문성 및 자질	4.470	0.645	5	1
교육교재의 전문성	4.190	0.705	5	1
담당과목과 담당교수의 전공상관도	4.150	0.746	5	1
사서채용(사서공무원, 사서교사, 전문사서 등)시 시험과목의 재조정	4.087	0.845	5	1
학교당국의 지원(교육환경 등)	4.082	0.777	5	1
교육수준의 다양화(초급, 중급, 고급)	3.735	0.834	5	1

5. 문헌정보학 교과목에 대한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분야의 학문영역을 7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연구자에 의해 임의로 구분된 영역구분이 다른 관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는 개연성 하에 90개의 과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어떤 변수들 간의 잠재요인이 있어 개별변수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도출하는 분석으로 탐색적 분석은 요인과 변수 간에 사전 지식 없이 진행한 것이다. 교과목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의 요인을 선택하는 것이 요인 적재행렬 해석의 용이성과 설명된 분산의 크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전된 요인적재량을 보면, 첫 번째 요인은 경영학 과목과 정보자원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과목이 정보기술과 관련된 과목으로서 '정보학'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고문헌조직, 동서양 서지, 고전자료 강독을 포함한 '서지학' 영역이다. 세 번째 요인은 대부분의 과목이 정보자원 및 정보자원활용,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되는 '정보조사제공학' 영역임을 알 수 있으며, 문화프로그램들이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요인과 일곱 번째 요인은 문헌정보학의 특수 주제, 문헌정보학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저작권문제, 출판과 관련된 과목들이 포함된 '문헌정보학일반' 또는 '기타'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정보자료의 조직과 관련된 과목이 포함된 '정보조직학' 영역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여섯번째 요인은 기록정보수집과 정리, 관리, 보존과 관련된 '기록관리학'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기존의 인지적 영역과 거의 일치하고 단지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영역은 도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영학 관련 과목들은 위의 모든 영역들에 분산되어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영이라는 것이 모든 업무에 적용되기 때문일 것이다(〈표 15〉 참조). 설명된 분산비는 50% 이상(0.5168)으로 6개의 요인이 대부분의 변이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표 15〉 문헌정보학과 교과목간 요인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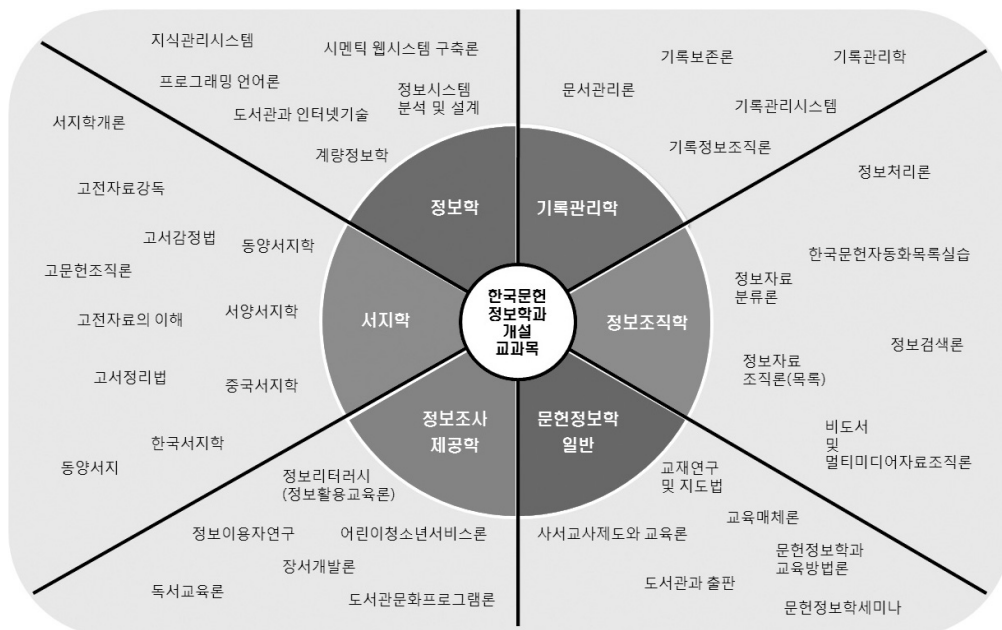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계량정보학	0.73875	0.19658	0.03794	0.1875	-0.06081	0.08974	0.08542
정보시스템분석및설계	0.72714	0.13632	0.07957	0.15045	0.1321	0.06338	0.06946
도서관과 인터넷기술	0.71463	0.02303	0.10196	0.12256	0.01928	0.0858	0.07255
시맨틱웹시스템구축론	0.70382	0.14179	0.04278	0.10367	0.01699	0.11302	0.17054
프로그래밍언어론	0.70104	0.2006	0.06264	0.10856	0.06904	0.08231	0.02303
지식관리시스템	0.69474	0.10509	0.15368	0.17858	0.00034	0.06639	0.07725
인터넷서비스구축론(웹DB구축)	0.69335	0.07864	0.09687	0.06666	0.06937	0.11865	0.03355
과학기술 DB평가	0.68622	0.15783	0.24128	0.0516	0.00311	0.02947	-0.05474
이용자인터페이스론	0.6829	0.0462	0.13054	0.17831	-0.05875	0.13119	0.0743
정보의 전자상거래	0.6584	0.1878	-0.02646	0.28581	-0.04798	0.18387	0.01085
지식구조론	0.6556	0.20364	0.03931	0.18751	-0.06103	0.06888	0.14201
데이터베이스운영론(웹DB운영론)	0.64321	0.11158	0.00988	0.01057	0.20825	0.10561	0.06468
전자학술지구축및운영	0.63682	0.16764	0.00629	0.04271	0.14626	0.12061	0.03454
디지털콘텐츠론	0.61194	0.068	0.15302	0.10177	0.13384	0.16162	0.10217
도서관정보네트워크(정보통신네트워크)	0.60724	0.12476	0.11254	0.10994	0.22818	0.13344	0.18646
멀티미디어론	0.60045	0.11203	0.12414	0.12882	0.2522	0.15212	0.05717
최신정보기술동향	0.59593	0.04611	0.17071	0.12836	0.06632	0.23245	0.01023
정보표준화론	0.54887	0.10134	0.14875	0.15653	-0.03932	0.25239	0.1094
정보사업론(정보시장론)	0.54266	0.19576	0.31749	0.25444	-0.09215	0.07785	0.01194
기업정보관리론	0.54243	0.18741	0.26884	0.17963	-0.05306	0.14518	-0.11577
도서관정보협력론	0.52733	0.12383	0.34737	0.07939	-0.02218	0.15141	-0.03728
도서관정보시스템운영론	0.48562	0.05375	0.18705	0.08449	0.24815	0.15928	0.31729
과학기술정보원	0.47112	0.35359	0.36193	-0.01489	0.10647	-0.11285	0.02013
인문사회정보원	0.46896	0.33532	0.36112	-0.03927	0.11342	-0.12977	-0.00027
학술커뮤니케이션론	0.46752	0.33179	0.24292	0.25988	-0.08596	0.00948	0.17317
도서관자동화시스템론	0.4561	0.03302	0.25853	0.017	0.31005	0.24327	0.26486
디지털도서관론	0.45045	-0.00474	0.27637	0.03132	0.20041	0.21972	0.32079
의학정보원	0.42644	0.37835	0.27995	0.03403	0.05369	-0.1169	-0.08577
메타데이터의 이해	0.36848	0.22709	0.18533	0.02076	0.31422	0.01333	0.19579
동양서지학	0.19277	0.8417	0.08091	0.0468	0.0898	0.22977	0.06691
서양서지학	0.18377	0.82723	0.09413	0.08448	0.07013	0.23431	0.01729
중국서지학	0.26711	0.8142	0.07564	0.08346	0.03437	0.20216	0.042
고서감정법	0.23636	0.76828	0.00834	0.19473	0.02545	0.12096	0.00225
한국서지학	0.10119	0.76038	0.16122	0.06423	0.06805	0.18321	0.27424
고서정리법	0.18991	0.73212	0.06716	0.12704	0.08601	0.13804	0.06888
고전자료강독	0.27413	0.72264	0.08283	0.14038	0.02094	0.2152	0.05493
고전자료의 이해	0.13226	0.67813	0.12846	0.18226	0.07777	0.22681	0.18027
고문헌조직원	0.18615	0.60332	0.08736	0.31127	0.21326	0.09884	0.09207
동양서지	0.2865	0.56961	0.26598	0.28724	0.10942	0.05614	-0.02507
서지학개론	-0.08879	0.53255	0.17866	-0.00399	0.0778	0.11378	0.52036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정보리터러시(정보활용교육론)	0.15906	0.0015	0.588	0.24705	0.05014	0.06225	0.02343
어린이청소년서비스론	-0.02239	0.07928	0.58774	0.46354	0.01689	0.15016	-0.09154
정보이용자연구	0.27216	0.10152	0.58276	0.11295	0.05431	0.00829	0.1056
장서개발론	0.07251	0.14137	0.57171	-0.14985	0.15191	-0.02981	0.30107
도서관문화프로그램론	0.03192	-0.01314	0.54769	0.32466	0.01108	0.14089	-0.01731
독서교육론	0.03904	0.06642	0.54335	0.45263	0.06949	0.09203	0.14572
도서관마케팅	0.15894	-0.00349	0.52636	0.16085	-0.04362	0.06311	0.20486
아동 및 청소년자료	0.09766	0.19183	0.52576	0.30546	0.09544	0.16597	-0.10751
관종별도서관운영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 등 포함)	-0.01852	-0.01836	0.51588	0.2088	0.20353	0.0709	0.30689
비도서 및 멀티미디어자료관리론 (콘텐츠관리론)	0.28978	0.14559	0.50432	0.01555	0.14294	0.19177	0.06556
학술정보활용법	0.3309	0.06823	0.50276	0.00941	0.24807	0.1056	0.03998
정보조사제공론(참고정보서비스론)	0.11253	0.091	0.49657	0.05758	0.19487	-0.00982	0.33767
연속간행물 관리론	0.21324	0.16532	0.49436	-0.01713	0.27736	0.1152	0.09888
주제별정보자원론	0.26518	0.25318	0.49068	-0.04443	0.18066	-0.04819	0.11631
인터넷자원활용론	0.41035	0.01027	0.47546	-0.0199	0.31421	0.13454	-0.04622
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 평가론 (정보통계분석론)	0.34439	0.24328	0.45252	0.14474	-0.15247	0.00392	0.23116
비도서자료활용론(디지털정보자원활용론)	0.39223	0.07516	0.43756	0.09153	0.32274	0.11027	0.00254
도서관건축론	0.21926	0.25863	0.39096	0.1727	-0.0576	-0.0102	0.08665
교재연구 및 지도법	0.19161	0.15443	0.0387	0.65023	0.12736	-0.00978	0.01093
사서교사제도와 교육론	0.08154	0.12562	0.08887	0.64706	0.11555	0.07687	0.07658
교육매체론	0.21215	0.09901	0.05867	0.63761	-0.00679	0.06753	-0.05175
문헌정보학과 교육방법론	0.21931	0.18826	0.03696	0.62589	0.04656	0.12632	0.1323
도서관과 출판	0.14856	0.16415	0.10141	0.5339	0.05366	0.0802	0.05678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윤리와 정보가치론	0.31626	0.12027	0.16928	0.43968	-0.00692	0.07315	0.16766
도서관운동론특강	0.35296	0.26636	0.26149	0.40445	-0.15066	0.09417	0.03614
문헌비평론	0.35861	0.35864	0.26413	0.39969	-0.0626	-0.02171	0.02268
문헌정보학세미나, 문헌정보학특강	0.29651	0.068	0.18285	0.39732	0.06248	0.09513	0.10345
독서치료	0.06194	0.1288	0.38891	0.39072	0.08071	0.06669	-0.03021
세계의 도서관(World Libraries)	0.13542	0.30572	0.07948	0.36268	-0.05217	0.0356	0.19256
지식정보사회와 도서관	0.20594	-0.03894	0.18161	0.35193	0.03852	0.07658	0.13456
도서관과 저작권	0.05187	0.01096	0.15077	0.28599	0.13571	0.02146	0.13135
정보자료분류실습	0.04247	0.03882	0.07391	0.14677	0.85282	0.06176	-0.02259
정보자료조직실습	0.06766	0.02255	0.09664	0.13965	0.84713	0.01062	-0.0573
정보자료조직론(목록)	0.05706	0.09923	0.0874	0.01141	0.74745	0.0038	0.27718
정보자료분류론	0.04672	0.09971	0.05967	0.0331	0.73716	0.01892	0.32746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습	0.08986	0.0839	0.13765	-0.01974	0.68316	0.0997	0.006
비도서 및 멀티미디어자료조직론	0.11624	0.27907	0.26097	0.20041	0.41519	0.07119	-0.00283
정보처리론	0.38155	0.16261	0.20502	0.05604	0.38989	0.2121	0.27585
정보검색론	0.28135	0.11922	0.25025	-0.08905	0.35764	0.24641	0.3525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사서실습	-0.06733	-0.11919	0.11373	0.28663	0.33541	0.06892	0.0371
문서관리론	0.21422	0.1995	0.10045	0.1752	0.06156	0.78501	0.0643
기록정보조직론(관리실습)	0.21105	0.24075	0.09511	0.19971	0.16183	0.76106	-0.08799
기록보존론	0.29928	0.20877	0.08533	0.08285	0.07568	0.7517	0.10378
기록관리시스템	0.21557	0.21693	0.04958	0.08798	0.02337	0.71221	0.1681
기록정보수집 및 평가	0.31431	0.2424	0.1267	0.22711	0.01162	0.70085	-0.05868
정부간행물(정부자료론, 정부기록물관리)	0.2898	0.18795	0.13323	0.02484	0.16249	0.66828	0.03353
기록관리학	0.18996	0.21707	0.10786	0.04682	0.04134	0.64035	0.31482
문헌정보학개론	0.11816	0.0218	0.07244	0.17731	0.18892	0.03528	0.6906
정보학의 이해	0.19015	0.13718	0.17618	0.04138	0.05746	0.12649	0.66732
도서관경영론	-0.01236	0.02397	0.40984	0.13145	0.12515	-0.00028	0.55247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0.31181	0.13788	0.01977	0.29001	-0.00307	0.08977	0.49977
도서 및 도서관사	0.09234	0.32755	0.03082	0.32648	0.03142	0.01876	0.48984
색인초록법	0.31367	0.20103	0.11699	0.01809	0.33034	0.25554	0.36376

각 요인별 설명된 분산비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13.451684	8.129709	7.076457	5.350237	5.132214	4.981735	3.938801



〈그림 6〉 교과목 수요도 요인분석 결과도

VI. 논의

본 절에서는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영역별 현장 필요성 인식조사결과, 교과과정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분석결과, 사서교사의 전공교과목의 실용성 평가, 그리고 관중별·담당업무별 교과목 필요성 정도에 인식결과를 종합정리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핵심 및 필수과목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문헌정보학 교과목 영역별 현장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첫째, 문헌정보학일반 영역에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과목은 사서실습, 문헌정보학개론, 도서관과 저작권, 지식정보사회와 도서관으로 나타났고, 이중 핵심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된 과목은 사서실습과 문헌정보학개론이다.

둘째, 정보조직학 영역에서는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자료조직론(목록), 정보자료분류실습, 정보자료목록실습,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습 순으로 현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순으로 핵심과목 지정의 요구도를 보여주었다.

셋째, 정보조사제공학 영역에서는 정보조사제공론, 주제별정보원, 인터넷자원활용론, 학술정보자원활용론, 정보리터러시, 비도서자료활용론(디지털정보자원활용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정보자원의 이해(주제별정보원), 이용자에 대한 이해(정보이용자 연구), 적절한 정보원을 적절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정보리터러시)를 위한 교과목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정보자원이나 디지털정보자원의 활용에 대한 교과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핵심 또는 필수과목으로의 지정요구 과목은 정보조사제공론, 주제별정보원 순이다.

넷째,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영역에서는 도서관경영론, 장서개발론, 도서관마케팅, 관중별도서관운영론 순으로 현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이중에서 도서관경영론과 장서개발론을 핵심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정보학 영역에서는 정보검색론, 디지털도서관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론, 정보학의 이해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핵심과목 지정여부에서 위 네 개의 과목 모두가 핵심지정 순위에서 상위순위에 나타났다.

여섯째, 서지학 영역과 기록관리학 영역에서는 교과목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평균값이 4.0을 넘는 과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영역에서 핵심지정 여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서지학개론과 기록관리학개론만이 이 영역 중에서 비교적 높은 수요도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위의 결과들을 보았을 때 핵심 및 필수과목 지정이 필요한 영역은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직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정보조사제공학, 정보학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장필요성이 높은 교과목으로 사서실습, 문헌정보학개론, 분류학 및 목록학, 정보조사제공론, 주제별정보원, 도서관경영론, 장서개발론, 정보검색론, 디지털도서관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론, 서지학, 기록관리학개론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그 외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과목으로 인터넷자원활용론, 도서관마케팅, 관중별 도서관운영론 등이 있다.

2. 교과과정 만족도 및 개선사항 분석결과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의 개정필요성 및 만족도,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 현장 사서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0% 정도의 사서들이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학교의 교육과정별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 20년간의 교과과정을 분석해 보았을 때 많은 변화가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목명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많은 과목이 폐강되고, 많은 신규과목이 개설되었으며, 교과목들이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교직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가도서관의 사서가 필요성을 가장 높게 표현하고 있었고, 담당업무별로 보았을 때는 전산관련업무 담당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설문응답자들에게 문헌정보학과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응답자들은 사서실습 및 현장답사를 통한 교육, 발표 및 토론위주 교육을 매우 높게 선호했다. 이 결과를 볼 때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문의 특성상 실습을 가미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수강했던 교과과정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보능력, 자원활용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고, 수강했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만족도 평가에서, 문헌정보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사서로서의 자질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타전공자에 비해 업무 배경지식 우수성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의 최신성, 교육내용의 전문성, 교육자의 전문성 및 자질, 교육교재의 전문성, 담당과목과 담당교수의 전공상관도라고 응답하였다.

3. 관중별 소속 사서들의 전공교과목의 실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도서관 관중별 소속 사서들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실용성 평가를

조사하였으며,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서교사의 경우 사서실습과목, 정보자료분류론, 독서교육론, 정보자료조직론(목록), 정보자료조직실습(목록실습), 정보자료분류실습, 독서치료 등의 순으로 전공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사서교사는 다른 집단에 비해 독서교육이나 독서치료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사서실습,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자료분류실습, 정보자료조직론(목록), 정보자료조직실습(목록실습), 장서개발론 등의 순서로 전공교과목이 실용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서교사와 마찬가지로 사서실습과목은 가장 상위 순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분류목록과목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도서관 사서의 경우 정보조사제공론(참고정보서비스론),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자료조직론(목록),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습, 정보자료분류실습, 사서실습, 도서관과 저작권 등의 순으로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사서의 경우도 정보자료 분류 및 목록 과목, 사서실습, 정보조사제공론 등의 과목을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전문도서관 사서의 경우는 사서실습 과목, 정보자료 분류 및 목록과목 순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의 경우 정보조사제공론이나 정보자원활용, 인터넷자원활용과 같은 정보조사제공학 과목이 상위 순위에 있는 것이 다른 집단과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담당업무별 전공교과목의 실용성 평가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담당업무별 전공 교과목에 대한 실용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수서업무 담당자들은 정보자료조직론, 정보자료분류론, 사서실습, 정보조사제공론, 정보자료분류실습 등의 과목을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목록업무 담당자가 가장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은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자료조직론(목록), 사서실습, 정보자료분류실습, 정보자료조직실습 순으로 나타났다. 위 과목들은 모두 분류목록업무에 필요한 교과목들임을 알 수 있다. 연속간행물 업무담당자들은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자료조직론(목록), 정보자료분류실습, 학술정보활용법, 인터넷자원활용론 등의 과목을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업무 담당자들은 정보자료조직론(목록), 사서실습,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자료조직실습, 정보자료분류실습 등의 과목을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대차업무 담당자들은 사서실습, 정보자료조직론(목록), 정보검색론, 기록관리학, 정보자료분류실습 등의 과목을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정보자료조직론(목록), 사서실습,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습, 정보자료분류실습, 메타데이터의 이해 등의 과목을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교육업무 담당자들은 사서실습, 정보자료분류실습, 정보조사제공론, 문헌정보학개론, 정보자료분류론 등의 과목을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기획업무 담당자들은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조사제공론, 정보자료조직론(목록), 사서실습, 정보자료조직실습 등의 과목을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대출업무 담당자들은 정보자료분류실습, 정보자료조직론(목록), 정보자료조직실습, 정보자료분류론, 사서실습 등의 과목을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업무 담당자들은 사서실습,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자료조직론(목록), 정보자료조직실습, 정보자료분류실습 등의 과목을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Ⅷ.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및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문헌정보학과의 핵심 또는 필수과목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필수 또는 핵심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하였다. 필수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과목그룹이다. 핵심은 경력경로별로 다르게 지정될 수 있는 교과목으로서 해당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서교사 분야로 진출하려는 사서는 독서지도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지만, 사서공무원쪽으로 진출하는 사서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은 필수와 핵심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교과목들이다.

첫째, 필수과목으로,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수요결과가 나타난, 사서실습, 문헌정보학개론, 정보조직학(분류목록), 정보조사제공론, 도서관경영론, 정보검색론 등 6개 과목을 제안한다.

둘째, 핵심과목으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나는 과목으로 정보자료분류목록실습, 주제별정보원(참고정보원), 장서개발론, 디지털도서관론, 서지학개론, 기록관리학개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머지 과목은 학교의 상황 및 교수진의 구성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사서실습 및 현장답사를 통한 교육, 발표 및 토론위주 교육을 제안하며,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주제의 최신성, 교육내용의 전문성, 교육자의 전문성 및 자질, 교육교재의 전문성, 담당과목과 담당교수의 전공상관도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기본 모형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전문사서별, 관종별, 기능별 경력트랙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